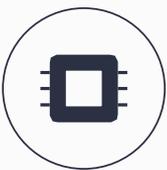




# VALUE INVEST KOREA

2017년 12월 둘째주



eWBM



인코스팜



헤드플레이



와이랩



딜라이트



VENTURE STORY



## 지문인식 보안 솔루션 개발

### ■ 이더블유비엠, 지문인식 보안 솔루션 개발

- 지문인식 솔루션을 하드웨어에 암호화해 저장, 서버가 해킹돼도 생체인식 정보가 새나가지 않는 철벽 보안 솔루션 개발-이더블유비엠은 자사가 개발한 보안칩(모델명 MS500)을 적용, 지문인식 솔루션과 동글을 개발
- 차세대 인증 시스템인 FIDO(Fast IDentity Online) 얼라이언스의 기술을 적용해 각종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eFDS(Fido Development System)를 출시-eFDS는 MS500 기반에 지문인식 알고리즘과 함께 FIDO의 2가지 표준인 2차 인증(U2F)과 생체인증(UAF)을 모두 탑재
- 중국에 법인 설립 추진 등 내년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-이더블유비엠은 이외에도 MS500 칩을 사용해 국내 모듈사인 디바이스디자인과 같이 SK텔레콤(SKT) 사물인터넷(IoT) 전용망 '로라(LoRa)' 모듈을 개발
- 이더블유비엠은 오는 6일 서울 코엑스서 열리는 'FIDO 세미나'에 참가



## 바이오 신원료 ‘아쿠아타이드’, SCIE급 학술지 논문 등재

### ■ 인코스팜, 바이오 신원료 ‘아쿠아타이드’, SCIE급 학술지 논문 등재

- ‘아쿠아타이드(Aquatide)’의 논문이 SCIE(과학논문 인용 색인)급 국제 저명 학술지인 ‘Biomolecules & Therapeutics’에 게재, 노화 근원 차단 효과에 대한 과학적 효능이 입증됐다고 6일 발표
-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‘아쿠아타이드’는 2016년 노벨상을 수상한 ‘오토파지 (Autophagy, 자가포식)’ 원리를 활성화시켜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항노화 신소재 펩타이드
- 연구에 따르면 아쿠아타이드가 일명 ‘장수유전자’로 알려져 있는 SIRT1 신호를 통해 오토파지를 활성화 시켜 노화가 차단되는 것으로 밝혀짐
- 세포 내부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노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의 변화를 줄이며, 이를 통해 신제 각 기관이나 세포의 노화를 차단하도록 유도
- 아쿠아타이드는 오토파지 원리를 활성화시켜 피부의 자기 재생을 촉진, 노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안티에이징 화장품의 주요 신원료로 주목
-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높은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진 아쿠아타이드와 같은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스킨케어 제품이 향후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
- 아쿠아타이드는 인코스메틱스 포뮬레이션 써밋 (In-Cosmetics Formulation summit)에서도 2년 연속 전문가 그룹에 소개
- 미국, 유럽, 일본, 국내를 비롯 세계 4개국 특허 등록을 완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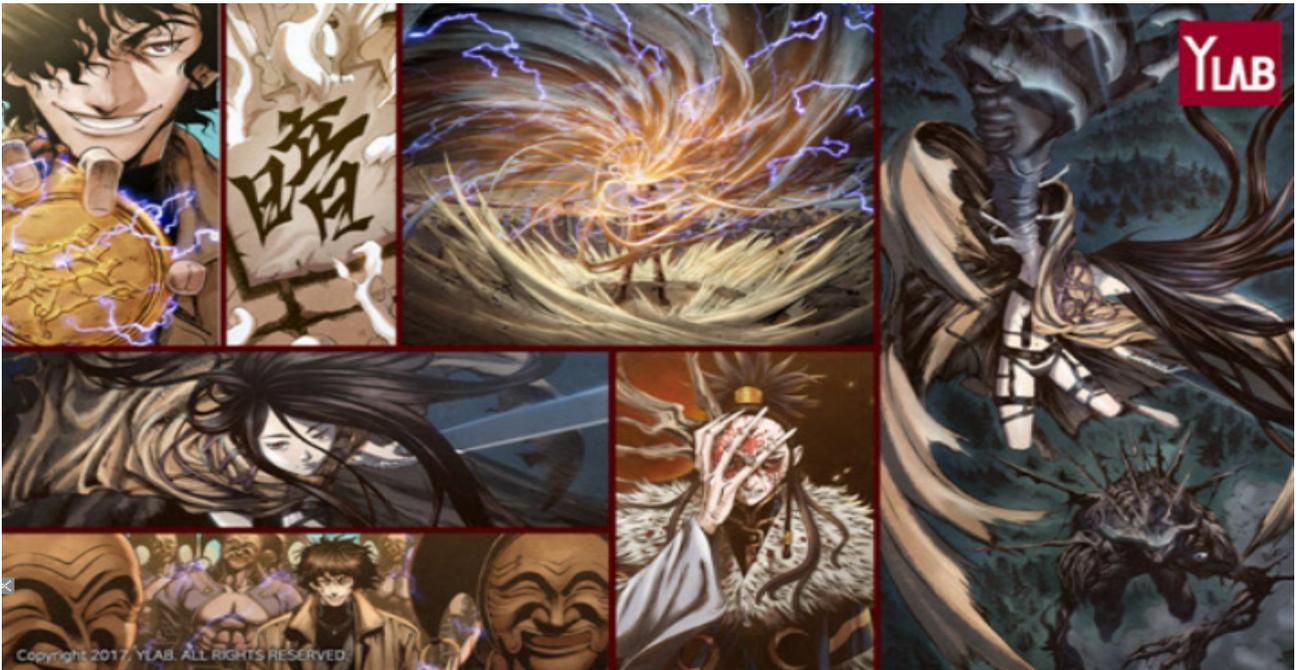
## 드라마 ‘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’ / 소설 ‘태안’

### ■ 고원희-이청아 ‘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’ 촬영 종료...9일 첫방

- 30회차에 달하는 촬영을 무사히 끝낸 드라마 ‘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’은 옥수수(oksusu)를 통해 12월 9일(토) 오전 10시, 라이프타임을 통해 12월 10일(일) 밤 9시에 첫 방송
- 드라마 ‘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’은 주연을 맡은 고원희, 이청아를 비롯 청춘을 대변하는 개성 넘치는 배역에 기대-라이프타임은 “나를 찾는 즐거움”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걸맞게 이 시대의 청춘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기획의도 언급
- 옥수수(oksusu)는 N포세대라 불리는 청춘들에게 ‘나 다움’을 잃지않는 용기와 위로를 전하겠다는 것이 기획의도

### ■ 태안 기름유출 사고 주민들의 작지만 특별한 이야기

- 태안 기름유출 사고 10년을 맞는 7일 오전, 양우석 감독이 기획하고 이진이 작가가 쓰고 태안신문 신문웅 기자가 찍은 사진이 표지로 쓰인 소설<태안>이 책으로 발간
- 올해 초 웹 소설로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웹 소설<태안>은 사고 10년을 맞아 책으로 출간-양우석 감독은 <태안>은 태안을 살린 주민들의 작지만 특별한 이야기로 정식 소설 출간에 이어 드라마나 영화로 추가 제작을 고려중이라고 언급



## 웹툰 제작사 '와이랩', 사업 확대

### ■ 웹툰 제작사 '와이랩', 사업 확대 나선다

- 와이랩이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. 대표이사 교체와 경영진간 업무 분담도 세분화 진행
- 지난 1일자로 심준경 최고재무책임자(CFO)를 신임 대표이사로 발령. 심 대표는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투자 심사역 출신
- 심준경 대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모펀드(PEF)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,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에서 기업 간 인수·합병(M&A), 벤처 투자 심사 등 경력 소유
- 기존 윤지영 대표는 올 3월 설립한 일본 현지법인의 대표로 일본 사업을 전담할 예정
- 와이랩의 창업자인 윤인완 대표 프로듀서는 기존과 같이 작품 제작과 대외 활동을 담당
- 현재 와이랩이 보유한 IP는 '부활남', '찌질의역사', '조선왕조실록', '테러맨', '나의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' 등 다수
- 작가로는 양경일, 김풍, 김재한, 무적핑크 등이 참여
  - 다른 제작사와 달리 IP를 회사가 직접소유해 수익구조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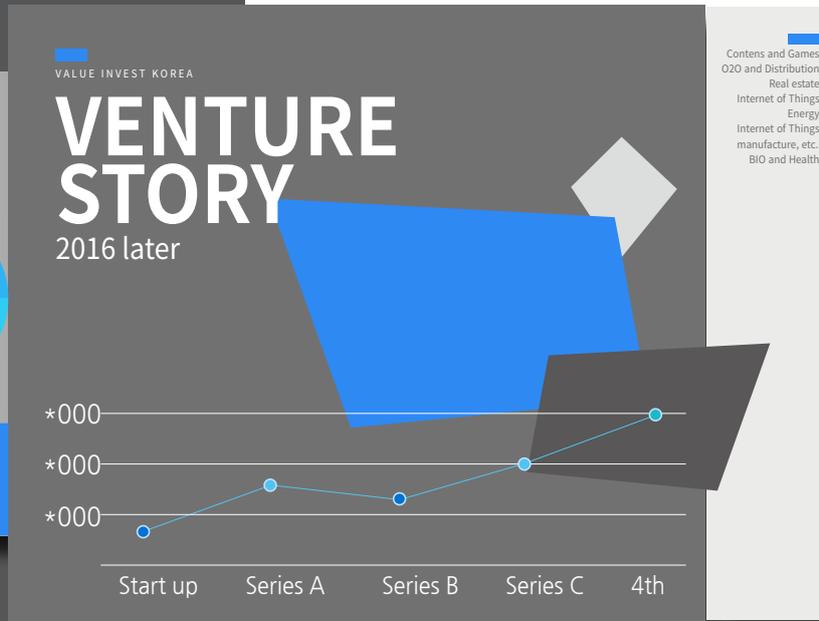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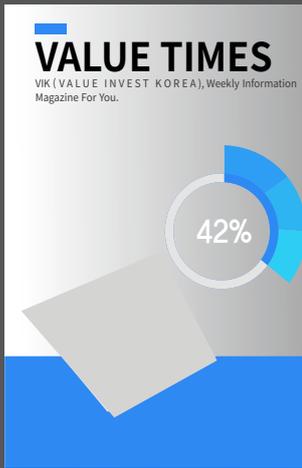
##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전제품 파격 할인

■ 딜라이트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 전제품 파격 할인 나서

- 지난 6일 '제9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'에서 기술혁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
- 수상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로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진행
  - 창립 이래 최초 전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
  - 일반 타사 보청기 가격대비 최대 70%이상 저렴
- 딜라이트는 이번 수상은 수많은 난청인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의 기업상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

# 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

제22회 2017.12.13



- 벤처투자, 사행성 빼고 빚장 다 푼다
- "반도체 호황 더 간다"...투자 늘리는 미국·일본



## 벤처투자촉진법

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업종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. 해외기업과 중견기업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. 벤처캐피탈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경험자 등 산업계 출신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.

벤처투자

사행성 빼고 빚장 다 푼다

-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이달 중 ‘벤처투자촉진법’(가칭·이하 벤촉법)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
- 중기부는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야만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토록 할 예정
- 투자업종 규제는 대폭 완화, 사행성업종을 제외한 전 산업에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
- 중견기업과 해외기업, 스팩(기업인수목적회사) 투자도 전면 허용
  - 현재 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 투자가 불가능.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해외투자는 창업기업 등 의무투자비율(40%)을 충족한 후 창투자 납입자본금의 40% 이내에서만 가능
- 벤처투자의 족쇄로 여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(40~50%)도 개선
  -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벤처캐피탈 규모나 조합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 의무비율이 차등 적용
-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확인제도를 손질, 액셀러레이터 등에서 근무한 인력의 경력을 인정하고 대기업 연구소나 창업 경험자도 전문인력 지정이 가능
- 증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도 조합 설립이 가능
-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수익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간자금이 혁신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도록 벤촉법을 준비
- 입법예고 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



## 반도체 산업

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·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며 넓게는 반도체소자 응용기기의 제작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한다. 전자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.

반도체 호황 더 간다

투자 늘리는 미국·일본

- 반도체 호황이 여타 국내 산업의 불황을 가리고 있다는 ‘반도체 착시론’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. 이런 반도체 ‘수퍼 사이클’은 언제까지 지속될까.  
→ 반도체 분야에는 3~4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는 소위 ‘실리콘 사이클’이 있었지만 자율주행·AI·IoT의 확산으로 이런 법칙이 무너질 전망
-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수요가 줄더라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(IoT)이 이를 대체하며 반도체 호황을 상당 기간 끌고 갈 것으로 예상
- IC인사이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은 올해 280억 달러(약 30조원)에 달할 전망  
→ 전년(229억 달러) 대비 약 23% 증가. 이 시장은 연평균 13.4%씩 커져 2021년에는 429억 달러(약 47조원)까지 늘어날 전망
- 보고서는 IoT 관련 반도체 매출 역시 연평균 13.2%씩 성장  
→ 이 분야는 지난해 18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올해 209억 달러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342억 달러에 달할 전망
- 반면 휴대전화용 반도체는 연평균 7.8% 성장에 그쳐 2021년에는 전체 시장의 4분의 1 규모(1056억 달러)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
- 각국 정부가 앞장서 반도체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선 것도 생각보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오래갈 것이란 쪽에 베팅한 결과로 풀이
- 일본 정부는 AI용 반도체를 포함해 700억 엔(약 6700억원) 규모의 관련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
- 인텔은 “자동차는 바퀴 달린 데이터센터”라고 부르면서 올해만 관련 산업에 10조원 이상 투자  
→ 애리조나주에 8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설립. 이어 AI 전문기업인 모빌아이를 1조6000억원